



With You

2016 Spring
통권 20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Women on the Run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상징합니다.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상징합니다.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소개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① 세계 여성의 날: Women on the Run 04
② 여성 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06



With You가 만난 사람
필리포 그란디 신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08



난민배움터
이들도 난민이었습니다: 팝 가수 미카 10



고맙습니다 —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기적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 스타 셰프, 안의 고백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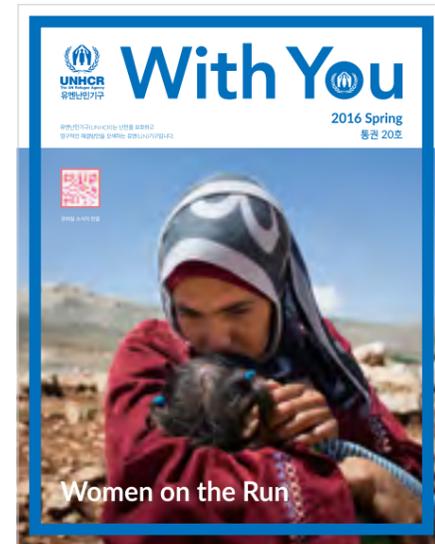


한국대표부 소식
기관 소식 + 후원 소식 14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16

Cover Story



시리아 난민 리나(Lina)가 두 살배기 딸 아이 마이사(Maysaa)를 꼭 안고 있습니다. 리나는 일곱 아이와 함께 레바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 세 명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고, 약을 사고 나면 음식을 살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잠시 시리아로 돌아간 남편으로부터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 UNHCR / Andrew McConnell

발행인 더크 헤베커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6년 3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모금(PSFR)팀
디자인 슬로워크

“아이야 너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특사 안젤리나 졸리

전 세계 난민 6천만 명 비정치적·인도주의적 UN 기구

오늘날 분쟁과 박해로 실형 상태에 놓인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는 6천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2015년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시리아 난민은 460만 명에 이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전 세계 난민들은 가장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유엔기구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50년 UN 총회 결의로 전 세계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부여받은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설립 이래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주요 활동



긴급구호



난민 등록



쉼터 지원



물과 위생



영양 공급



보건 서비스



교육 지원



영구적 해결책

Women on the Run



“홀로 이동하는 여성과 소녀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가족이나 소속 단체도 없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이동하는 경우에도 종종 폭력의 대상이 되며,
범죄를 신고하지 않아서
적합한 보호와 지원을 못 받기도 합니다.”

— 빈센트 코체텔(Vicent Cochetel)
유엔난민기구 유럽국장

난민 그리고 여성, 이중의 장벽

이는 비단 유럽에 도착한 여성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분쟁, 폭력, 박해 등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전 세계 난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전시 중에는 강간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 때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민 여성은 무장 세력에 의한 납치나 폭력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성에 기반을 둔 폭력(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SGBV)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여성으로서 사회, 문화,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 교육, 직업 등에 있어서 차별이나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 여성난민위원회(WRC)가 지난 2015년 11월 공동으로 시행한 현장 평가에 따르면, 홀로 혹은 아이들과 이동하는 여성, 임신부와 수유부, 십 대 소녀, 무의탁 아동, 조혼 여성, 장애 난민, 고령 난민은 특수한 위험에 처해 있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엑소터스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 평균 2,000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유럽땅을 밟고 있습니다. 험난하고 고된 피난길에서,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난민 수용 시설 및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난민’이자 ‘여성’으로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티마(Fatima)의 이야기

그리스 섬 항구에서 파티마는 쇼크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난 과정 중 폭력을 경험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지 못한 남편은 저와 어린 딸을
같이 이동 중인 다른 남성의 손에 맡겼어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저와 딸아이의 여행 서류와 휴대전화, 돈을 모두 빼앗았고,
남편과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파라(Farah)의 이야기

파라는 여덟 아이를 데리고 유럽으로 피난길에 오른 아프간 난민입니다.
아이들 중 일곱은 17살이 안 된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란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살해당하면서 저와 어린 자식들만 남겨졌어요.
아이들의 삼촌은 제 딸들을 억지로 결혼시켜 팔아 넘기려고 했고,
저는 아이들의 조혼을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 과정도 험난했지만, 조혼의 문턱까지 갔다 온 딸들은
마주치는 많은 인파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동해야 했어요.”

나비처럼 연약하지만, 희망적인 여성의 삶을 위하여

유엔난민기구는 여성의 안전한 피난길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국 정부 및 여러 인도주의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와 전문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촌을 비롯한 난민 거주 지역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생활 공간, 남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시설,
의식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여 난민 여성 보호에 힘쓰는 한편, 이들의 교육과 생계,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위험과 역경을 홀로 견뎌야 하는 난민 여성들에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 모든 이름은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누르(Noor)의 이야기

임산부 누르는 세르비아에서 많은 난민 인파 가운데
어린 두 아이를 이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난민위원회의 도움으로
근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기 전까지
추위 속에서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경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춥고 몸도 안 좋아서 뱃속 아이의 상태가 많이 걱정돼요.”

라비(Ravi)의 이야기

라비와 그의 가족은 남아시아 국가 출신입니다.
고향에서의 불안정을 피해 시리아에서 새 삶을 시작하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이들은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피난길에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외딴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칼과 권총을 거누며 제 부인을 폭행했고 재산을 모두 빼앗았어요.
다행히 그 무장 세력으로부터 탈출했고 현재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한때 재정착을 꿈꿨던 독일로 언제쯤 이동할 수 있을지
앞길이 막막해요.”

Women on the Run

“난민 여성의 삶은 국경을 넘는다고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불안, 고립과 역경으로 가득찬,
심각한 트라우마 경험을 시작하게 되죠.”

—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전 유엔고등판무관

2015년 유럽 도착 난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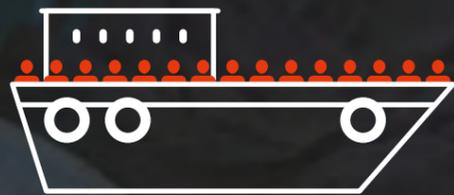
100만 명 이상

2016년 3개월간 유럽 도착 난민 수

15만 명 이상

매일 평균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

2,000 명 이상



그 중 여성과 아이의 비율
(2016년 1월 기준)



55%

매일 1,100명

시리아 난민 여성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



30%

시리아 난민 여성 가장 수



15만 명 이상

그 중 20%은 임신한 상태로 추정

그 중 심각한 외상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 가장 수 16,000명

그리스 유입 시리아 난민 가구의 20%는
여성 가장 가구 (2016년 1월 기준)

지원 현황

블루 도트 센터(Blue Dots)



주요 난민 경유국 루트에 난민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블루 도트' 센터 설립 및 운영, 안전한 거처, 가족 찾기, 보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난민 등록 절차를 통한 법적 보호



담요, 방수천 등 필요 물품 지원

모금 현황

여성 난민을 포함해 유럽과 시리아 및 주변국 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2월 말 기준)

필요금액
162,045

단위: 만 달러



현재 모금액
15,964

시리아 긴급구호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필요금액 16억 2,045만 달러 중
1억 5,964만 달러가 모금되어
90.1% 부족

필요금액
23,575 현재 모금액
10,950

유럽 긴급구호

유럽 난민 경유 및 비호국 지원

필요금액 2억 3,575만 달러 중
1억 9,500만 달러가 모금되어
53.6% 부족

여성 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호에 참여해주세요!

- 10만 원이면, 난민 여성 7명이 1년 동안 위생용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0만 원이면, 난민 여성 20명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학 수업 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이면, 난민 임신부 150명이 영양 보조제, 아기 담요, 비누 등으로 구성된 출산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만 원이면, 난민 여성을 위해 9개월 동안 출산 수술실 의료 기구와 약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후원참여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홈페이지 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필리포 그란디 Filippo Grandi 신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HCR / Susan Hopper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분야 및 외교 실무가로 활약해온 필리포 그란디가 지난 10년간의 임기를 마친 안토니오 구테레스 난민고등판무관의 후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With You는 발 빠르게 새로운 유엔난민기구 수장을 만나보았습니다.

Q1.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이상 국제 외교 분야에서 일해왔고, 그중 27년은 유엔 기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비영리단체에서의 커리어를 시작으로 유엔난민기구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 및 제네바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이어 유엔 아프간지원단 (UNAMA)의 부대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의 대표로 일했습니다.

Q2. 지난 커리어의 많은 부분을 난민들과 일하는 데 할애하셨는데, 어떤 것이 계속해서 난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일하도록 만들었나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중점은 ‘그 누구도 남겨지지 않는(No One Left Behind)’ 데에 있습니다. 난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를 비롯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들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난민들과 일해왔습니다. 그때 가까이에서 피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았고, 그 경험이 제게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원동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은 관료주의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 Photo / Rick Bajornas



사회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시리아 국내실향민 아동을 격려하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HCR / Bassam Diab



레바논 베카 밸리의 임시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HCR / Sam Tarling

Q3. 그 때의 경험 중에서 특별히 영향을 끼친 일화가 있다면요?

젊은 시절 봉사활동으로 태국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캄보디아 난민들을 만났는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 제 눈앞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단지 ‘난민’이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 강력하고도 극적인 동기가 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Q4. 30년 전의 방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시리아 및 주변국 난민촌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고등판무관으로 취임한 이후 첫 행보로 레바논, 터키, 요르단, 시리아 등 난민 최전방 국가들을 방문해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난민들의 상황은 절박했고 그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Q5. 난민촌 방문 중에 기억에 남는 난민들이 있다면요?

남편 없이 미성년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에므라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두 다리가 뻗뻗해지는 소아 만성 장애 또한 앓고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던 에므라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에므라는 터키 니집(Nizip) 난민촌에서 식량을 비롯해 필요 물품을 배급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은 근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트마(Fatma)의 가족도 떠오르네요.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동안 이 부부의 두 자녀가 파편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은 3년 전 시리아를 떠나 현재 터키 니집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마에게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았죠. ‘평화가 찾아왔을 때’라는 단서였어요.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화는 찾아와야 합니다.

Q6. 이제 막 난민고등판무관의 직책을 시작하셨는데,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분쟁, 폭력, 박해, 각종 인권침해와 역경을 피해 강제로 이주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난민을 비롯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는 현재 6천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호대상자들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처한 전쟁 등 각종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이 난민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Q7.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 전 국제 사회에 80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해나갈 생각인가요?

이번의 대규모 청원은 시리아 국내 실향민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 또한 시리아 주변국에 사는 난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요가 더 커졌지만, 저희는 요청 금액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른 긴급구호 상황들이 많고 평균적으로 요청 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요 금액이 채워지지 못하면 난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시리아 사태를 통해, 시리아 및 주변국에서의 불충분한 지원으로 난민들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큰 이유임은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밀입국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더욱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새로운 문제들도 해결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저희는 여러 국가와 함께 3월 말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또 다른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8.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시리아를 비롯해 예멘, 리비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가 지속되기 전까지 이러한 결과에 따르는 필요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계속해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의지와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며, 유엔난민기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난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레바논의 눈동자를 가진 미카 시리아 난민의 손을 잡다



버려진 양계장에서 살고 있는 아베드(Abed)의 가족을 만난 미카 © UNHCR / J. Matas

한국에도 난민이?

미카처럼 분쟁, 폭력, 박해 등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면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을 비호신청자 혹은 난민지위 신청자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호신청을 하려면 난민지위 신청서를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경우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비호신청자 및 난민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호 신청자 **15,874명** | 난민 지위 인정 **577명** | 인도적 체류 **911명** | 심사 대기 **5,934명**

◇ 출처: 법무부, 2016년 1월 31일 기준

지난 2월 콘서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미카(Mika). 매 공연 넘치는 에너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국내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출생지인 레바논 베이루트를 찾았습니다. 아련한 기억 속에 머물던 고향 땅을 밟아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온 유엔난민기구 서포터 미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의 손길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내가 누구든, 말과 피부와 고향이 얼마나 다르든 (글: 미카)

나이가 들수록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나는 특정 국가 출신이 아니다. 오늘날 내 삶은 나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조부모와 친척, 가족들의 삶과 문화로 만들어졌다. 외할아버지는 시리아인으로 당나귀 등에 전 재산을 싣고 다마스쿠스를 떠났다. 레바논인 외할머니는 16세에 베이루트 코니시 지역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당시 58세인 할아버지와 만났다. 영국인 친할머니는 지나칠 정도로 우아한 와스프(WASP, 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로, 연변이 유창한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출신의 외교관과 결혼했다. 이분의 아들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카이로와 로마에서 자랐다.

나는 1983년 내전(內戰)이 한창이던 베이루트에서 태어났다. 내전 중 키프로스로 피신했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왔다. 파리 내 레바논 주민들 틈에서 자라면서 레바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나는 프랑스 사립학교에 다니는 미국인 소년처럼 보였지만, 레바논인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집에 깔린 카펫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까지 모두 레바논 것이었다. 부모님의 친구들도 레바논인이었다.

나는 프랑스인의 발음과 연한 피부색을 가진 덕에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전쟁과 파괴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좋지 않은 시기에 아버지가 출장을 떠났고, 우리 가족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사흘간의 쿠웨이트 출장길에 올랐던 아버지는 걸프전쟁에 휘말려 미국 대사관에 8개월간 인질로 잡혀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다. 분쟁 지역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이 전쟁에 대한 공감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나는 프랑스인이었지만, 집에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이때의 느낌을 잊어 본 적이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느낌이었다.

성인이 된 후 레바논인의 정체성을 잃은 적이 없다. 지난 2008년 7월, 나는 내전 당시 동베이루트와 서베이루트를 분리하는 무인 ‘녹색선(Green Line)’ 지역으로 알려진 순교자의 광장에서 첫 베이루트 콘서트를 열었다. 이후 나는 여러 차례 베이루트를 방문했고 나와 연관된 레바논,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그렇듯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먼발치에서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성탄절 사흘 전에는 시리아 난민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레바논에 다녀왔다. 레바논은 전쟁과 파괴의 공포로부터 피신한 1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품고 있다. 이들을 도우려는 기구들의 노력,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민 인구를 맞아 준 레바논 주민들의 수고를 상상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내 두 눈을 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단순한 수치와 논쟁거리가 되기 십상인 난민의 위기를 내면화하고 싶었다. 거리를 좁혀야만 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느꼈다.

방문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두 개의 단어는 ‘의지’와 ‘유연함’이다. 엄청난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의지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유연함을 봤다.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으면 폭력에 쉽게 부서진다.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런 유연함뿐이다. 이와 같은 의지와 유연성의 결합이 인간의 가장 강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의지와 유연함이야말로 테러리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 동시에 너무도 많은 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치이다.



레바논의 비공식 주거 지역에 사는 시리아 난민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미카 © UNHCR / J. Matas



시리아 난민 음악가들, 무국적자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노래하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는 미카 © UNHCR / J. Matas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 스타 셰프, 안의 고백



“내일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요즘 각종 요리 프로그램이 방송계를 석권하면서 스타들이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방송은 이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떡방’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의 스타 셰프 안레(Anh Le) 역시 셰프로서의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베트남 음식점 네 곳을 경영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요리 프로그램 ‘베트남을 먹다(Spis Vietnam)’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가이자 베트남 음식 홍보대사라도 알려진 그녀는 덴마크에서 실리지 않은 신문이나 여성잡지가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 셰프의 후광 뒤에도 숨겨진 유년 시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안은 한때 난민이었고, 그중에서도 지중해를 건너와 유럽에 정착했던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해상으로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족 보트피플의 모습. 이들은 밀입국자가 배를 버리고 달아난 이후 수일을 안다만해에서 표류하다, 2015년 5월 주변국의 도움으로 상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AFP / Christophe Archambault

배 위에서의 삶

안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군이었던 남베트남의 해군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 이후 그녀의 가족은 베트남으로부터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의 아버지는 때마침 배를 가진 중국 사업가를 만났고, 배를 공짜로 운전해주는 조건으로 가족들과 함께 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일은 거의 목숨을 건 도주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지중해 위의 ‘보트피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바닷가에 무사히 도착한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이 탄 배는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정박을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자, 안의 아버지는 결국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배를 침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난민촌에서 덴마크까지

안의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인도네시아 난민촌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몇 달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의 지원으로 덴마크에 재정착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은 저희를 영국 공수특전단(SAS) 비행기에 태웠어요. 벌써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승무원들이 거의 5분마다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고... 아직도 잊지 않는 기억이에요.”

아픔을 공유하다

그녀는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난민으로서 무사히 덴마크에 정착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셰프로서도 당당히 성공한 안은 2012년에 덴마크의 가장 멋지고 강한 여성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처음에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아픔을 오랜 기간 혼자서만 간직해 오던 그녀는 2015년 지중해에서의 난민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로소 입을 열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보트에 넘쳐나는 사람들과, 가라앉은 배에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사람들, 시체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의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이 제 기억을 일깨웠어요. 저는 슬퍼졌고, 밖으로 나가 외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현재, 안은 SOS 어린이 마을(SOS Children Villages)이라는 자선단체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녀는 출간한 요리책 수익으로 베트남 아이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음식점에서 자선 파티를 여는 등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동안 겪은 수많은 전쟁에서 세계가 무언가 배웠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어요. 내일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작은 소녀는 몇십 년 뒤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의 가족에게 가져온 아름다운 변화와 기적, 고맙습니다!

¹ **보트피플**: 보트피플은 바다에서 배를 띄워 그 배 안에서 사는 사람 또는 해로로 비공식적으로 배를 몰고 탈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해로를 통해 베트남을 탈출하는 난민이 많아지자, 베트남 보트피플을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1975년 이후 84만 명 이상의 베트남 보트피플이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피난했고 그 중 75만 명 이상이 서방 국가로 재정착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지중해나 아덴만 해역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해로를 통해 이동하는 난민의 수는 수십만에 이릅니다.

² **재정착**: 난민문제를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영구적 해결책 3가지(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재정착) 중 하나로, 자발적 귀환이나 현지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얻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0만여 명이 26개국에 재정착하였습니다.

한국대표부 소식

소식 ①

2015년 한국대표부 모금 현황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15,956,557달러를 후원했고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위: 달러



지정 기탁 ● 12,868,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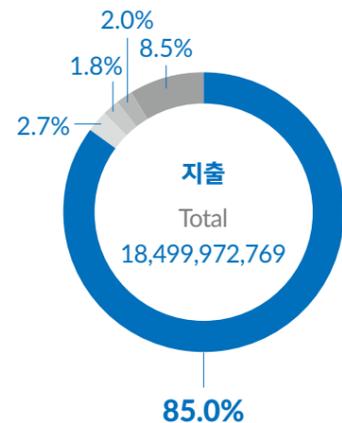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비지정 기탁 ● 3,087,692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민간 모금 2015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18,499,972,769원이 조성되고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위: 원



기금	금액
가장필요한곳에 ●	15,717,322,517
시리아 긴급구호 ●	1,574,745,018
SBS 희망TV 기금 — 케냐 ●	374,143,740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	339,676,210
네팔 긴급구호 ●	183,610,544
SBS 희망TV 기금 — DR콩고 ●	168,639,740
아프리카 긴급구호 ●	100,000,000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	22,182,000
나인밀리언 캠페인기금 ●	12,250,500
MBC W기금 ●	7,402,500

◇ 자세한 기금 설명과 사용 내역은 2016년 6월 발행될 연례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부분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소식 ②

가상체험(VR)을 이용한 모금 활동 시작

“한국의 평범한 거리에서 자타리 난민촌 안으로”

한국대표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요르단에 위치한 난민촌의 모습을 가상체험 (Virtual Reality)할 수 있는 헤드셋을 이용한 대면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상체험 헤드셋은 요르단에 위치한 자타리 난민촌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를 착용하면 3분 동안 난민이 생활하는 주거지, 식량배급소, 보건소 등의 모습을 한국어 내레이션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지난해 멕시코 대표부에 이어 가상체험 캠페인을 진행하는 두 번째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입니다.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대중이 난민 문제를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모금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수도권 지하철역을 비롯한 곳곳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홍보 부스에서 가상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소식 ④ 후원 소식

거창고등학교 —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해 주신 경남 거창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금홍연 후원자 — 지구 반대편 니카라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후원 동참해주신 금홍연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 1년간 재능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부해주신 만안청소년수련관 학생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방상수 만년필 동호회 — 전 세계 난민보호에 대한 관심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미카 팬클럽 — 풍저금통으로 기부와 함께 유엔난민기구의 2016년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산초등학교 5학년 8반 — 알뜰 장터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해 주신 충북 진천 상산초등학교 5학년 8반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손편지 운동본부 —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정성 어린 편지 쓰기를 통해 난민들의 아픔에 공감해주신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 500여 명과 손편지 운동본부 이근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유명수 후원자 — 얼마 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후원금을 증액해주시고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를 선물로 주신 유명수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장관상 수상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동규 후원자 — 달린 거리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후원해주신 이동규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한미주 후원자 — 2015년 전사회와 연말 송년회에서 직접 제작하신 컵과 달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도움 주신 한미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식 ③

KB국민카드&신한카드와 함께하는 포인트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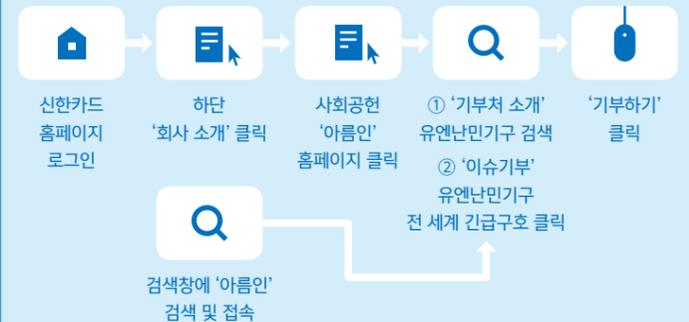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고통 받는 난민에게”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님들께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포인트로 전 세계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후원자님들께서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www.kbcard.com, 고객센터 1588-1688)



신한카드 (www.shinhacard.com, 고객센터 1544-7000)



◇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포인트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른 그림 찾기

난민 소녀들이 신나게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여 다른 부분 네 곳을 찾아보세요!



퀴즈의 정답을 사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6 봄호/후원자명/우편물 받으실 주소(☑ 2016 봄호/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4월 말까지 보내주시는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